목포시 '위드 코로나' 체육시설 개선

체육시설에 부착된 불편사항 건의 안내문.

이용 주민 불편사항 효율적인 유지관리 안내문 설치
야외운동기구 신규 설치…리틀야구장 인조잔디 조성

목포시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생활체육시설 개선에 힘쓰고 있다.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도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생활체육시설 확충하고 개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시는 공원, 나대지 등 생활주변에 야외운동기구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중앙식료시장 외 2개소에 공중걷기, 옆구리운동 등 5종을 새로 설치해 인근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지난 3월에는 이용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부서와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38개소에 188개 설치했다.

리틀야구장에 대한 정비도 실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사업비 4억7000만원을 투입해 야구장을 조성하고 지난 2월에는 배수로 정비와 인조잔디(5700㎡)를 조성하고 덕아웃, 벤치 등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하여 자라나는 야구 꿈나무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친환경 도시 환경 조성은 물론 야간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낮 시간 동안 충전된 태양전지 모듈을 통해 가동되는 친환경 태양광 LED 가로등 6주를 리틀야구장에 설치했다.

이 외에도 시는 부주산 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파크골프장 잔디 보강 등 각종 생활체육시설 보수 보강을 지속 실시해 갈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생활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복지 중 하나다"며 "시민들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생활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순례자의 섬' 신안 기점 소악도 쉼터 생겼다

카페·식당·특산품 판매장 갖춘 게스트하우스 개장…1일 최대 40명 수용

'순례자의 섬' 신안 기점소악도에 게스트하우스〈사진〉 생겼다

신안군은 증도면 기점·소악도에 게스트하우스를 신축하고 개장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장한 게스트하우스는 4인실 4실과 8인실 1실 등 총 5객실로 수용인원 24명이다. 기존 16인실 게스트하우스를 포함하면 1일 최대 4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게스트하우스에는 방문객들을 위한 부대시설 카페와 특산품 판매장, 식당 등이 마련됐다.

아름다운 섬과 12사도 건축 미술작품이 어우러진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체류하고 싶은 방문객의 휴식과 여행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범운영을 거쳐 개장했다.

순례자의 섬 기점 소악도는 108명 거주하는 작은 섬마을에서 이제는 연간 5만3000여명의 많은 여행자가 찾는 신안의 또 다른 대표 관광지로 떠올랐다.

신안군 관계자는 "순례자의섬 게스트하우스가 기점·소악도의 관광상품 역할을 함으로써 방문자에게는 안전하고 편안한 쉼터가 되어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최고의 관광지라는 명성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방문 서비스도 지원 받는다

완도군, 10일간 23만원

완도군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가 가정에서도 방문 산후 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부(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후 건강관리사 방문을 통해 가정에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 가격은 10일 기준 평균 23만 원(첫째아 기준)이다.

신청은 출산 전 40일 전, 출산 후 30일 이내에 하고,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하면 된다. /완도=정은조 기자 ejhung@kwangju.co.kr

영광군, 영화 '재심' 박준영 변호사 초청 강연

26일 영광예술의전당

영광군은 오는 26일 오후 4시 영광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영화 '재심' 의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를 초정해 인문학 강연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 '희망을 말하다'이다. 박준영 변호사는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으로 '우리들의 변호사', '지연된 정의'의 저자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 편에 서서 억울한 이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로 유명하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의 성장 과정과 재심 전문 변호사로 거듭나기까지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강의는 대면 강의와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여 운영하며, 대면 강연에 함께하지 못하는 군민은 영광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찾아가는 문화강연 신청은 영광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50명을 신청받고 있으며 온라인 강의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영광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군 총무과(061-350-4705)로 문의하면 된다.

다음 강연은 5월31일 열리며 신병주 교수가 '우리 역사 바로알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어 임택 여행작가, 이찬종 이삭애견훈련소 소장의 강연도 열린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울돌목 거슬러 오르는 힘찬 숭어, 달고 찰진 '보리숭어'

해남 우수영의 명물, 울돌목 숭어가 거센 물살을 뚫고 돌아왔다. 보리 이삭이 팰 무렵에 잡혀 '보리숭어'라 불리는 봄철 숭어는 여름철 산란을 앞두고 살이 올라 달고 찰진 맛이 일품이다. 특히 우수영 숭어는 거센 조류의 울돌목 바다를 거슬러 오기 때문에 육질이 단단하고, 쫄깃한 식감으로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해남군 제공〉

무안군 '전국 최고' 갯벌낙지 전용포장재 공급

무안군이 낙지 생산 어촌계에 갯벌낙지 전용포장재를 지원했다.

봄철 무안 갯벌낙지 성어기를 맞아 갯벌 낙지 명성과 브랜드가치를 보전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다.

군은 낙지를 생산하는 28개 어촌계 400어가에 전용포장재 8만6000개, 아이스팩 2만7000개를 공급했다.

무안군 관계자들이 낙지 생산 어촌계에 전달할 갯벌낙지 전용포장재를 배에 싣고 있다. 〈무안군 제공〉

이번 지원으로 낙지생산 적기에 맞춰 어업인들의 전국적인 택배 주문 판매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홍양 무안군 해양수산과장은 "2007년부터 낙지 전용포장재를 지원함으로써 타지역 낙지와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갯벌낙지 명성·브랜드 가치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갯벌낙지는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한 청정 갯벌에서 자라 육질이 여리고 감칠맛이 나는 전국 최고의 명성을 자랑한다.

지난해 기준 약 11만8000접(1접당 20마리)의 낙지를 어획해 어업인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

진도군, 올바른 볍씨 소독·못자리 중점 홍보

진도군 농업기술센터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볍씨 소독과 적기 못자리 설치 지도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국립종자원에서 보급되는 정부 보급종은 전량 소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돼 벼 키다리병, 도열병, 깨씨무늬병, 세균성 벼알마름병, 벼잎선충 등 병해충에 올바른 종자 소독법으로 대비해야 한다.

채종한 종자는 볍씨 소독에 앞서 종자 선별을 위해 소금 물가리기를 한 후 충실한 볍씨를 골라낸 후 잘 마른 종자를 사용, 온탕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온탕 소독으로 키다리병을 예방할 수 있지만 그 밖의 종자 감염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온탕 소독과 일반 약제 소독을 같이 실천해야 한다.

친환경 재배의 경우 약제소독은 불가능 하지만 온탕소독과 소금물가리기, 석회유황 처리 방법 중 2가지 이상은 반드시 실천해야 볍씨 전염에 따른 병충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진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농업인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온탕 소독 작업 대행을 실시하고 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